

중국

중국 新식민주의론에 시진핑 답하다..."아프리카에 600억불 추가 지원"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입력 2018.09.04 16:17 | 수정 2018.09.05 00:31

중국의 신(新)식민주의론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5년 전인 2013년 9월 5일 자신이 제창한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가 개발도상국을 빚더미 함정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은 600억달러를 추가로 아프리카에 지원하기로 했다.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 개막 연설을 통해서다. 3년 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 600억달러 지원 발표에 이은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개막연설에 앞서 오전에 베이징 국가회의중심에서 '부유의 길로 함께 내딛다'를 주제로 중국 아프리카 지도자와 공상계 대표 고위층 대화 겸 제 6회 중아프리카 기업가 대회 개막식 연설도 했다.

중국과 아프리카 각국 간 정상회의는 2006년 베이징, 2015년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 이어 3번째이다. 4일 폐막한 이번 정상회의엔 3200여명의 해외인사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아프리카 40개국 국가원수, 10명의 정부 수뇌, 1명의 부국가원수와 아프리카 연맹 주석이 포함됐다. 아프리카 장관급 인사만도 240명이 참석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빚더미 함정 제공, 신식민주의론, 군사 영향력 확대 등 중국 비판에 대한 반박과 반미(反美)동맹 구축에 방점이 찍혀있다. 5불 원칙 견지, 평화 유지를 위한 무상 군사원조 지속, 연말까지 부채 탕감 계획 등 제시, 패권주의 반대와 상호 핵심이익 지지 등이 그것이다.

시 주석의 연설은 아프리카 뿐 아니라 세계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에 경제적인 제재를 가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이같은 반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중국 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중국 신식민주의론에 반박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식민주의론... 5불 원칙 견지 반박

일대일로로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로 보는 시각에 시 주석은 5불 원칙으로 맞섰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에 맞는 발전노선을 탐색하는 데 간섭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내정에 간여하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원조에 어떤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는다 △아프리카 투융자에서 정치적 사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등 5가지다. 각국도 아프리카와의 관계에서 이 5불 원칙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 건설이 평화의 길, 번영의 길, 개방의 길, 녹색의 길, 혁신의 길, 문명의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는 일찌감치 동고동락의 공동운명체가 됐다"며 "앞으로 인류 운명 공동체의 모범이 될 더욱 긴밀한 공동운명체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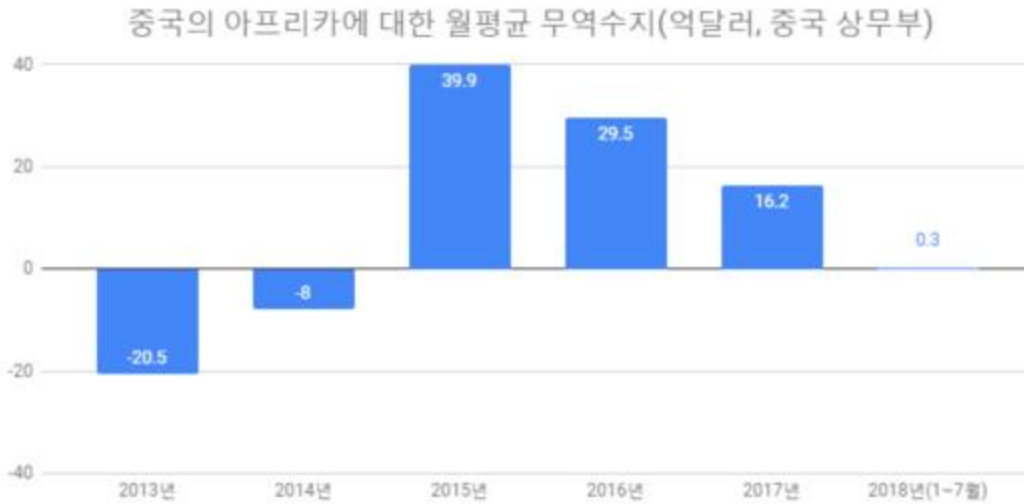
4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 원탁회의에서 '더욱 긴밀해진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를 구축하자'는 베이징 선언과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베이징 행동 계획(2019-2021년)' 문건이 통과됐다.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중국, 아프리카 국민들만이 발언권이 있다"며 "누구도 상상과 억측으로 협력의 현저한 성취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4일 정상회의 폐막소식을 전하면서 아프리카 측이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중국이 아프리카와의 협력에서 늘 도의를 우선으로 했다며 국제관계에서 오랜기간 존재해온 불평등 국면과는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게 알려진 하계 게인고브 나미비아 대통령의 최근 주나미비아 중국대사에게 한 발언은 시 주

석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지난달 22일 나미비아에서 장이밍(張益明) 중국 대사가 정상회의 브리핑을 하며 게인고브 대통령에게 정상회의 때 아프리카의 중국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게인고브 대통령이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는 (당신들의) 꼭두각시가 아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일각의 아프리카 자원 착취 비난을 의식한 듯 "아프리카로부터 비(非)자원성 상품의 수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아프리카 최빈국들의 중국 국제수입박람회(11월) 참가 비용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15년부터 아프리카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 평균 무역흑자가 2015년 39억9000만달러에서 올들어 7월까지 3000만달러로 줄어드는 등 무역수지가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 군사영향력 확대 의혹...무상군사원조 지속

시 주석은 아프리카 평화안정 촉진에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며 중국 아프리카 평화안전협력기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아프리카의 평화안전 유지 협력을 위해 아프리카 연맹에 무상군사원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는 "(서아프리카 말리의) 사헬 지대, 아덴만, 기니만 등 지역 및 국가의 안보 수호 및 대테러 노력을 지지한다"며 "중국 아프리카 평화안전포럼을 창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일대일로 건설, 사회 치안, 유엔의 평화유지, 해적 타격, 반테러 등에서 50여개의 안보 원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군사적 영향력 확대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첫 해외 군사기지를 아프리카 지부티에 세운 중국의 글로벌 군사 행보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빚더미 함정 지적...부채탕감 계획 제시

시 주석은 3년 전 10대 협력 계획을 통한 600억달러 지원 약속이 모두 실현됐거나 안배를 끝냈다며 이 계획을 기초로 향후 3년간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박람회 열고, 아프리카에 중국과의 경제무역협력구(공단)을 신규로 조성하거나 업그레이드하기로 하는 등 8대 행동을 통해 600억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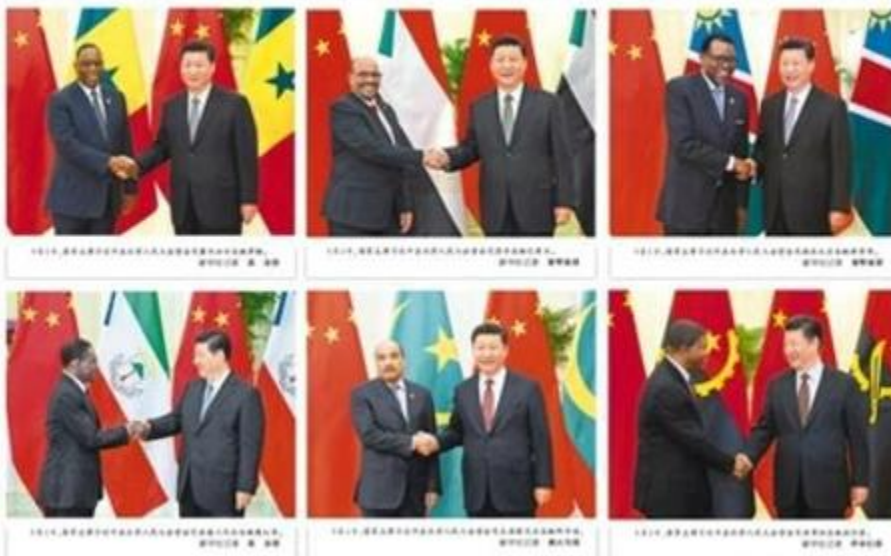
자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다. 150억달러는 무상 지원 및 무이자와 우대 차관으로 제공하고, 200억달러는 신용대출 한도를 통해 지원한다. 또 100억달러 규모의 중국-아프리카개발기금을 마련하고 50억달러의 대(對)아프리카 수입 용자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직접투자가 100억달러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동시에 아프리카 최빈국과 부채가 심각한 빈국, 내륙의 개도국, 조그만 도서국가를 상대로 2018년말까지 상환되지 않는 정부간 무이자 차관을 탕감해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수교국으로 제한해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국교를 맺지 않아 이번 정상회의에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은 에스와티니(옛 스와질랜드)를 압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인프라 부족 등 아프리카 발전을 제약하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 자금을 요긴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며 겉만 화려하고 실속은 없는 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반미동맹 의혹...아프리카와 핵심이익 상호 지지 강화

习近平分别会见出席中非合作论坛北京峰会的部分非洲国家领导人和国际组织负责人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4개 아프리카 국가중 수교국 53개국의 정상을 초청해 공동운명체 건설을 역설했다. /연합뉴스

시 주석은 미국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반미 세력을 규합하는 행보를 보였다.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패권주의와 강권정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

다"고 지적한 게 그것이다.

패권주의, 보호주의, 일방주의는 중국 정부가 무역전쟁을 시작한 미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단골 용어다. 시 주석은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반대한다"며 "스스로를 외로운 섬에 가두면 앞날이 없다"고도 했다.

특히 시 주석은 "아프리카와 정치 대화 및 정책 소통을 확대해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 우려 문제에 관련된 상호이해와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 국제 및 지역문제에 협력을 긴밀히 해 중국과 아프리카는 물론 개도국의 공동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전쟁 같은 이슈에 대해 아프리카에 우군이 되달라고 한 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과 아프리카 우호가 청년세대에 계속 전승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과 아프리카 인민 단결 진흥의 꿈이 조기에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